

## 강진군, 공모사업서 '強小 지자체' 길을 찾다

강진군이 내실을 기우며 '강진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인구 4만104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단기 실적, 외적 성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장기 전략, 자체 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10년 뒤를 내다 보며 주민과 지역자원을 중심에 두고 현장과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서 그 성과도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올 들어 38건 선정 234억원 상금...예산 10% 총당  
민자·산단 유치 등 외형 성장 대신 '틈새 전략' 택해

산업기반이 미흡하고 재정이 취약한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전남도의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산업단지나 기업을 유치하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지역발전 방안보다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육성·발굴하는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이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의 창의력과 능동성을 자극하는 한편 정부와 전남도의 공모사업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로드맵을 작성, 집중 공략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직원들이 '공모사업 귀재'로 거듭나고 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정부 각 부처 및 전남도가 실시한 45건의 공모사업 가운데 무려 38건에 선정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지원 비율이 낮아 아예 신청조차 안 했고, 서류를 접수한 4개만 탈락해 선정비율은 90.5%에 달한다.

이렇게 해서 받은 예산은 234억 6700만원으로, 올해 강진군 예산(특별회계 제외) 2445억6000만원의 10

분의1에 육박하고 있다. 선정된 공모사업의 전체 예산은 348억원이고, 이 가운데 자부담(농민 등 실제 공모수혜자 부담분)이 35억8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의 실제 부담은 77억5500만원이다. 전체사업비의 5분의1 수준인 셈이다.

공모사업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 과거 주로 시설 설치 위주의 공모사업에 집중했던 군은 올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분야, 특히 군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택했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재능 기부 공모사업', '고려청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역문화콘텐츠 상품개발보급사업', '지역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군 부담은 낮추면서 정부와 도의 자금을 끌어들이 지역자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지난 20일 강진군 청자박물관에서 '고려청자 DB구축사업' 운영업체 직원들이 강진에서 발굴된 고려청자와 파편을 분류해 제작연도 등을 파악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군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관련 사업비 23억5000만원 전액을 지원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르포-다시 찾은 필리핀 태풍피해 현장

### 영양실조·전염병 확산...식량·의약품 절실

타보곤시=김용희기자

"고통받는 필리핀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 타보곤(tabogon)시 직프레드 도달데(40) 시장은 22일 도착한 조선대학교 필리핀 태풍피해 긴급의료봉사단(단장 김성중)을 직접 찾아 고마움을 표했다. <관련기사 2면>

그는 "광주 의료진들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줘 고맙다"면서 "체류하는 동안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대 의료봉사단을 만나게 된 주민들 얼굴에는 며칠 만에 다시 찾아준 광주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조선대 의료봉사단이 지난 22일 밤 한국에서 출발, 필리핀 세부 타보곤시를 다시 찾은 것도, 3시간의 짧은 수면을 취한 뒤 피요(Piyo) 마을을 시작

로 의료봉사 활동에 들어간 것도 주민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9일 (세희망나무 긴급구호팀)이 필리핀 타보곤시를 찾아 의료 활동을 펼치고 생필품을 전달했지만 타보곤시는 여전히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태풍 '하이옌'이 남긴 생채기는 가시지 않아 집없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전염병 확산 우려도 높은 형편이다.

특히 굶주림에 지쳐 영양 실조를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염된 물을 마셔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고통받는 아이도 적지 않다. 태풍 이후 고열과 기침 등 감기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해줄 의료진과 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민 아내닐(여·40)씨는 "태풍 올랐다(하이옌)를 뜻하는 필리핀어)가 왔을 때 마을 뒷산 동굴에 은 가축이

도망갔는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음식과 식수가 부족해 허식나 더 큰 병이 걸리진 않을까 염려했는데, 광주에서 의료진들이 찾아와줘 너무 안심이다"고 울먹였다.

조선대 의료봉사단은 필리핀에서 긴급의료지원뿐 아니라 방역, 집수리 등 복구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마을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마을에 찾아가는 '모바일 진료' 활동도 벌인다.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도 1만 5000개나 준비했다.

김성중(48) 조대봉사단 단장은 "단순한 일회성 봉사가 아닌, 끝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광주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원하는 모습에서 필리핀인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imyh@kwangju.co.kr

## 알림 '광주 정신'을 아시아로

### '광주 진료소' 건립 성금 모금합니다



다음달 19일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캄보디아 캄퐁스퓨주(州)의 1호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

광주일보사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성금 모금을 펼칩니다.

동남아시아의 '광주 진료소' 개설 추진사업에는 광주일보사와 아시아 지원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 광주시·광주시의회를 비롯한 광주시의사회·광주시약사회·광주시치과의사회·광주시한의사회·광주시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보건·의료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모금은 다문화시대를 맞아 이주여성의 출신국 국민에게 사적인 한국과 광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다문화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달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캄퐁스퓨주(州)에 1호 '광주 진료소'가 문을 열게 되며, 향후 미얀마와 필리핀 등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이주여성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2·3호 '광주 진료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부설 교육센터도 함께 개설돼 한국과 광주를 알리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문화시대 새로운 민·관 국제협력의 모델이 될 '광주 진료소'는 인권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진료소' 성금 모금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예금계좌=광주은행 013-107-337079 (예금주: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
- ◇ARS 성금 모금=060-700-0775
- ◇문의 전화=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62-222-3566) (사회망나무 사무국 (062-675-7118))

光州日報社

## 법무법인 설립인사

저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맥을 설립하였습니다. 민, 형사 등 각종 중무분야를 강화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脈 법무법인 맥

- 대표변호사 조재건 (연수원 247) (서울대, 2011년 순천지원 부장판사 퇴직)
- 구성원변호사 윤철호 (연수원 357) (서울대, 2006년 변호사 개업)
- 대표변호사 서정압 (연수원 267) (서울대, 광주고등법원 판사 퇴직)
- 소속변호사 문영곤 (로스쿨 27) (경희대 법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업무개시: 2013. 11.

- 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309호) 전화. 062)226-5112 팩스. 226-5118
- 순천(분): 전남 순천시 왕지로 30 (거형빌딩 202, 203호) 전화. 061)727-7099 팩스. 721-4552
- 여수(분): 전남 여수시 시청로 6 (신한금융투자빌딩 5층) 전화. 061)692-4600 팩스. 692-4608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llanam

# 아이 낳기 좋은 전남

아기 탄생의 울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의  
고동 소리입니다.

전라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